



남원 도동동에 'JB희망의 공부방' 오픈

전북은행지역사회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이 장마에 따른 많은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

전북은행지역사회봉사단은 남원시 도동동 소재 한부모가정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57호 봉사활동 및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오픈식에는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노조간부 전원, 전북은행 바른영 남원지점장 남원경철서 여성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매년 전북도경찰청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공동대응협의체에서 추천한 여러 시·군·구 중 주거환경 개선과 자녀들을 위한 학습 환경조성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직접 공부방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올해 어머니 혼자 아동 4명을 어렵게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전북은행 지역사회봉사단은 책상 의자, 책장, 수납장 블라인드 등 물품을 품소 2층 집안으로 옮기고 배치하는 봉사활동을 펼쳐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전북은행은 2014년부터 전라북도경찰청과 함께 조순 및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총 13곳의 위기가정에 'JB희망의 공부방'을 조성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김익희 기자



전주대 레슬링부, KBS배 전국대회 단체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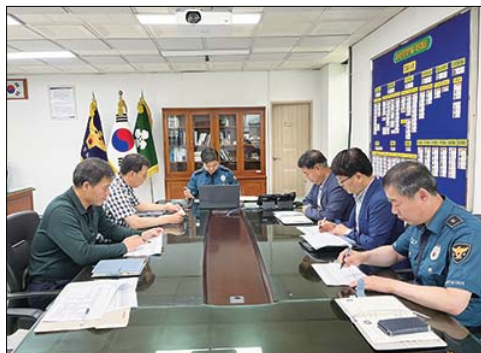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레슬링부가 제45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단체 1위를 거머쥐었다고 밝혔다.

지난날 29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국민체육회관에서 열린 제45회 양정모음립격제기년 제45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12명이 참가하여 개인전 1위(4명), 2위(2명) 3위(1명)를 메달을 휩쓸며 단체전 종합우승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수상자는 60kg 이주원(운동처방학과 1학년), 63kg 소원(운동처방학과 3학년), 67kg 윤진형(운동처방학과 4학년), 97kg 윤동현(운동처방학과 2학년) 등 4명의 학생 선수가 1위를 차지하였고, 77kg 정영규(운동처방학과 4학년), 67kg 손태양(운동처방학과 2학년) 학생 선수는 아쉽게 2위를 유윤민(운동처방학과 4학년) 선수는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윤동현(운동처방학과 2학년), 이주원(운동처방학과 1학년) 학생 선수는 그레코로만형 97kg, 60kg급을 각각 출전해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이며 전 경기 풀승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 3월에 회장기 전국대회를 비롯해 이번 대회까지 우승하고 있는 윤진형 선수는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고 김윤호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김재훈 기자



고창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합동회의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보복 살인 사건 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지난날 29일 서장 주재로 수사과장, 형사팀장, 여청계장, 112상환팀장 등이 참석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안전조치 대상자들의 보호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위험도를 재평가하였다. 또한,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수사·여청·112상환실 등 각 기능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점검·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석현 경찰서장은 "월 1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선제적·예방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점검·관리 체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일상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창립 18주년 맞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 태권도 활성화 전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이 7월 1일 창립 18주년을 맞는다.

재단은 2005년 당시 문화관광부로부터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 설립허가를 받은 이래 2010년 '공공기관 지정'과 2014년 '태권도원 개원', 2020년 자회사 태권도원 운영관리(주) 설립 등 지난 18년 동안 큰 성장을 거듭해 왔다.

지난날 30일, 창립 18주년을 기념해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과 조재동 노동조합지부장 등 재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우수 직원으로 표창을 받은 유정민 주임은 "담당 사업인 태권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태권도봉사단 해외 파견 등 우리 재단이 수행하는 국내외 태권도 진흥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태권도원 방문객도 부쩍 증가했다. 태권도를 알리는 데 앞장선다는 각오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6월 현재, 태권도원 외국인 방문객은 3,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고, 특히 7월 이후 태권도원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기념행사 열어  
“태권도 진흥 위한 공공기관 사명 완수 최선”

대하고 있다.

또한, 엔데믹을 맞아 가족·친구와 함께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인 '태권스데이' 참가를 위한 태권도원 방문도 줄을 잇고 있는 등 태권도 진흥을 비롯해 태권도를 즐기는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갑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재단 및 자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태권도계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안정과 혁신을 거듭하면서도 국내외 태권도 지원, 태권도원 활성화, 태권도 문화 확산 등 태권도 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농업인 자긍심 고취... 한농연 남원연합, 한마음대회 개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남원시연합회(회장 이삼호)가 주최하는 제29회 가족 한마음대회가 지난날 30일 남원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경영인의 역할 다짐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소통·화합의 장을 준비한 행사로 농업 관련 단체장 및 유관기관장, 회원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원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한 공로로 남원시의회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 유은실 단장 남원새마을금고 우기만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전북도지사 표창에 김종택,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 표창에 양두래, 한농연 전라북도연합회회장 표창에 유진열, 한국농어민신문에 공영식, 한농연 전라북도연합회 감사패에 조대성 등과 회원 자녀 중 우수한 용성과 김현호, 고창북고 장예원, 서진연고 박소정 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



서를 전달했다.

이상호 남원시연합회장은 "지금까지 그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했듯이 그동안 갈고닦은 영농기술을 적극 활용, 남원농업이 미래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선도 역할에 최선을 다 하자"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름다운 농촌만든다”... 무주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감사패 수여식·사례발표·특강 등 진행

이날 행사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선도적 학습단체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기념식과 적상면 이현승 회원의 사례발표(학습단체 활동 후기), '아름다운 농촌만든다' 결의문 낭독, 인성코리아 이승희 강사의 농업인 소통을 위한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한국농촌지도자무주군연합회(회장 유종석),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회장 윤정순), 한국4H무주군본부(회장 이종인), 무주군-민연합회(회장 구자명) 회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는 농촌지도자 유현공 회원과 생활개선회 박숙희 회원, 4H본부 박숙자 회원, 무주군 4H연합회 최새론 회원이 무주군에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유공자에게 주는 공로패를 받았으며 무주농협 박장용 씨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나혜린 주무관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농업인학습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안옥빈 부회장이 농촌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에서 주는 표창장을 수상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오늘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도적 학습단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안도와 미래 무주 농업 농촌을 이끌어간다는 다짐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기후변화와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문제가 농업인학습단체라고 하는 든든한 울타리에서 실마리를 찾기를 바라며 무주군에서도 핵심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농생명수도, 전북 무주의 "아름다운 농촌만든다"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설 것과 △농촌의 깨끗한 환경보전과 안전하고 깨끗한 농축산물 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 △농촌사랑 실천과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 등을 결의했다.

농촌지도자무주군연합회 유종석 회장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 4H가 더 같이 참여하는 학습단체라는 자부심이 무주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한다는 사명감을 키우고 있다"라며 "무주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주체로서 특성화, 차별화, 전문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김제시립도서관, 2023년 여름 독서교실 운영

김제시립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독서의 즐거움과 올바른 독서 습관의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어린이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이달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또 하나의 가족, 동물 탐구생활'을 주제로 진행되는 여름 독서교실은 매일 한 권의 주제 도서를 함께 읽고 독서감상문 쓰는 방법, 독서토론, 마인드맵 작성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 문제해결력,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3일부터 21일까지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아동열람실 방문 및 전화접수(☎540-4142)로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영미 익산시의원,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삼기, 영동2동, 삼성동)이 지난날 28일 마약 근절 캠페인 'NO EXIT(노 엑시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마약 퇴출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정영미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은 한 번의 접촉으로도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마약으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익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캠페인은 '마약, 출구 없는 미로(NO EXIT),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든 인증사진을 찍어 게재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익산시의회 여성의원 첫 주자인 정영미 의원은 이영수 현 전라북도 노인체육회 축구협회장의 지명으로 참여했으며, 마약 근절에 함께 협력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다음 주자로 김선남 삼성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목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함께 전북, 착한 한끼 나눔' 남원서 진행

남원시는 시 자원봉사센터와 전북도자원봉사센터가 지난날 30일 대신면 스마일빌에서 시설 입소자 250명을 대상으로 '함께 전라북도, 착한 한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노래와 퓨전 장구 등의 공연, 네일아트, 방향제 만들기, 스텐실 공예 등 생활공예 프로그램 및 터링과 한궁 체험, 계단행과 팝콘 나눔 봉사 등 남원리더리클럽, 봉사원을 비롯한 9개 봉사단체와 6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불거리와 즐거기다, 먹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등 자원봉사로 하나 되는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남원시 이은주 시민소통실장은 이날 행사에 대해 "소의계층에게는 이웃과 함께하는 파스함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인식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름다운 남원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인회 무주지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한국부인회 무주군지회가 지난날 30일 무주군교육발전 장학재단 측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한국부인회 무주군지회 미경옥 회장은 "무주문화재야행에서 간식 부스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모아 장학금으로 기탁하게 됐다"라며 "지역행사에 동참해서 보람 있었고 무주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보낼 수 있어 흐뭇하다"면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따르면 한국부인회 무주군지회는 52명의 회원들로 구성이 돼 있으며 평소 무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사업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은 "범민의 마음으로 지역을 살리고 아이들을 보듬어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장학재단도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